

욕심 많은 장성농협 조합장... 또 정관변경 시도 장기집권 노려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내일 3차 시도

“자체감사 종료 시점 이사회 열어 심의 상정 이해 안돼”

오는 3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장성농협은 또 2023년 1월 20일 이사회를 열어 3차 정관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선거일정으로 오는 2월 16일까지 선거일 공고,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조합장선거 운동 후 3월 8일 투표를 한다.

장성농협 구성 선물을 배당하는 명목으로 약2,830여명(농협직원 조합원 14명 포함) 조합원과 85명의 대의원에 물품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너무 무성하고 있으며, 현 조합장이 조합장 출마예정자 이모씨를 밀어준다고 하면서 무슨 핑수를 부리고 있다고, 장성농협 대의원과 조합원의 주장이다.

장성농협 조합원 관계자는 “지난 11월 28일

조합장이 조합원 문자발송에 ‘14년간 조합장으로 동거동락하며 쉽이 달려 온 것 같습니다. 그 시간동안 조합원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송 받았으면서 본인 입으로 조합장 출마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아직도 무슨 미련이 많이 있는지 끊임없이 못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장성농협 앞에서 집회 중인 조합원이 조합장 집권처에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특히 앞으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비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또 정관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비리를 덮으려 한 속셈인지 알수가 없다”고 열변 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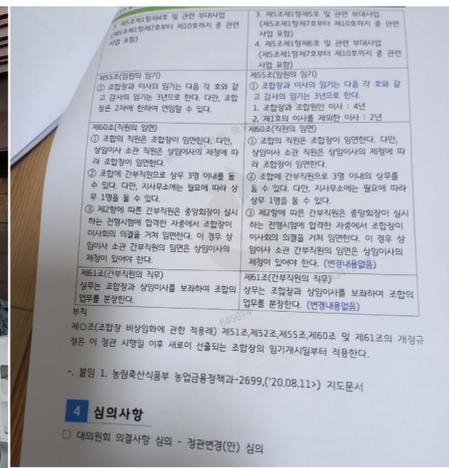
이어 대의원 조모씨는 “지금 현재 장성농협 자체감사를 오는 20일까지 시행하고 있다면



서 감사보고서도 작성되지 않는 상황에 무엇이 그리 급한지 감사 끝나는 날(20일) 이사회를 열어 정관변경 심의를 상정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였다.

조합원 김모씨는 “박조합장은 믿을 사람이

못되며 또 정관변경을 시도해서 변경이 된다면 비상임 조합장으로 출마 할 사람이고 그러게 되면 농협은 퇴행적인 발전이 없으며 소문대로 비리가 더 늘어 날 것이다”면서 “장성군 후배들 생각해서 35년 농협직원 14년 조합장



장기집권 욕심을 버려야 한다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중히 조합원과 관계자에게 사과하고 선거를 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동채본부

광주 총선 출마자들 각각 포럼 결성-연구소 개설 '봄'

일종의 컨벤션 효과, 인지도 상승, 지지층 결집 기대

광주서만 10명 안팎...정책 연구·참신공약 개발 효과

제22대 총선이 1년3개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1년 앞으로 각각 다가오면서 출마 입지자들 사이에 포럼 설립과 연구소 개설 붐이 일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일종의 '컨벤션 효과'와 인지도 상승,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덩달아 선거 관리감독 기관도 분주해지고 있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밤상머리를 겨냥한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포럼 결성이나 연구소 등 개인 사무실 개설로, 10여 명의 입지자가 이같은 방식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내년 2월께로 예상되는 당내 경선이나 당 안팎의 각종 여론조사에 대비한 인지도 끌어올리기 차원으로, 정치 신인 뿐 아니라 지역 정가에서 잔뼈가 굵은 풀뿌리 정치인까지 베이스캠프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통상 선거 6개월 전후로 붐을 이루는 출판기념회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정책 제안과 새로운 정책짜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광주 동남갑 선거구 민주당 경선에 나설 예정인 정진욱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전남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포럼 광주세상'을 공식 출범하고 '총선 열차'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중앙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특별강연을 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오피니언 리더, 자치활동가,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젊은 기업인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산을 민주당 경선에 도전하는 정재혁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첨단에 '광주 혁신 경제연구소'를 열고 올 하반기에 광주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포럼 개최를 준비하며 이름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연구소 개설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 동남갑 출마 예정인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경제국토교통연구소'를 개소했고, 서구갑 출마예정자 중 한 명인 김병진 전 청와대 행정관도 지난해 7월 '더연 정치연구소'를 설립했다. 정재혁 행정관도 최근 첨단 지구에 '광주 혁신경제연구소'를 차렸다.

법률가 출신 양부남, 박군택 변호사는 각각 출마예정지인 서구갑과 광산갑 지역에 법무법인을 열고 공천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반면 일부 입지자들은 포럼과 연구소에 신

중한 태도다.

출마지역을 아직 정하지 못했거나 행선지는 정했으나 '사법 리스크'와 선거제 개편 등 대형 변수로 관망중인 이유도 있지만, '선거법 리스크'도 신중론을 키우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포럼은 제87조 '단체의 선거 운동금지', 연구소는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조항과 맞닿아 있어 세부 규정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포럼은 컨벤션 효과나 이름 석 자를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위험성도 있다 보니 '정치 가성비'가 생각보다 높지 않고, 그래서인지 연구소나 개인사무소 개설로 전술을 전환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포럼이나 연구소는 후원회, 상당소, 동창회, 계모임과 함께 모두 단체 선거운동이나 유사기관 설치 여부를 놓고 종종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자치구 선관위별로 상시 지도단속을 펴고 있다”며 “아직까지 관련해서 논란이나 위법성 시비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작년 남부지방 역대 가장 긴 가뭄... '227일' 바짝 말랐다

지난해 평소보다 비가 적게 내리면서 남부 지방의 경우 한 해의 3분의 2 이상 내내 가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2년 연 기상가뭄 발생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뭄일수는 156.8일로 2015년(168.2일)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 발생 일수는 227.3일로 1974년 관측 이래 가장 오래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의 경우 무려 281.3일동안 가물었다.

지난해 가뭄을 시간순으로 보면, 2월 하순부터 전남·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가뭄이 시작돼 4월 중순에는 경북까지 확대·심화돼 4월 말까지 지속됐다.

재작년 겨울과 봄철 전국 강수량이 각각 평년 대비 14.7%, 62.1%로 평년을 밑돌면서 5월 초에 가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연 강수량 854.5mm로 평년 대비 60.9% 수준에 머무르며 가뭄 피해가 컸다.

최이슬기자

설날 연휴로 다음호 25일자 발행합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저주담양군연합사업단